

교회일치에 관한연구: W.C.C.를 중심으로*

정미숙¹⁾, 양재건²⁾

A Study on church unity: Focusing on W. C. C

Mee-Sook Cheong¹⁾, Jae-Gun Yang²⁾

요 약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W.C.C.의 교회일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W.C.C.의 신학사상을 검토하여 이를 칼빈의 신학사상에 비추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W.C.C.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올바른 교회일치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국교회에서의 W.C.C.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해볼 때, 그간의 W.C.C.의 교회일치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매우 피상적이었고, 그 결과 W.C.C.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바람직한 교회일치를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공통적 교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다른 교회와의 공통점을 다른 교회의 관점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실현시켜야 한다. 넷째,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교회일치는 W.C.C.에서 주장하는 전 세계적인 기구 통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직 믿음의 일치, 교회본질의 일치, 분열불가의 원칙 등이 적용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핵심어 : 세계교회협의회, 교회일치, 기구 통합, 자유주의 신학, 종교적 다원주의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W.C. theological thought of W.C.C. with the question of church unity and intends to reach a rational conclusion in light of Calvin's theological thou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theories of correct church unity through the criticism of W.C.C.. Considering the discussion of W.C.C. in Korean churches, it was very superficial in the controversy over W.C.C.'s whole church, and as a result W.C.C. It was a factor that prevented the problem from being resolved reasonably. Especially, in the Korean situation, liberalism and religious pluralism are very difficult issues for Korean conservative church to accept. For a desirable church, First,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Church of Christ is a church. Second, we must acknowledge the existing common church reality. Third, the commonalities with other churches should be realized in their churche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 churches. Fourth, do not sacrifice truth. In conclusion, good church unity has nothing to do with global institutional integration as

Received (December 10, 2018), Review Result(January 21, 2019)

Accepted(February 25, 2019), Published(March 30, 2019)

¹⁾(assistant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Corresponding Author) 02838 Dept. Naturopathy, DongBang Culture Univ., Seongbook-dong, Seongbook-gu, Seoul, Korea

E-mail: ayurveda16@naver.com

²⁾(ph.D. course) 02838 Dept. Beauty Art, DongBang Culture Univ., Seongbook-dong, Seongbook-gu, Seoul, Korea

E-mail: yjk6166@naver.com

* 이 논문은 양재건의 석사 논문을 정리 한 것입니다.

claimed by the W.C.C. and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 unity of faith, the unity of church essence, and the principle of non-divisibility principles are applied.

Keywords : W.C.C., church unity, instrumental unity, liberal theology, religious pluralism.

1. 서론

가톨릭의 분열인 1054년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 종교개혁으로 인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 교회의 분열 등 크고 작은 분열이 있었다. 1937년 옥스퍼드(Oxford) 제2차 “삶과 봉사 위원회” 세계 대회는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에 관하여” 라는 전체 주제 아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기초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확고히 하였다.

옥스퍼드 대회가 지향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라는 주제는, 교회가 사회, 국가 그리고 경제 질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앙과 직제 위원회” 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1]. 이렇게 두 기구가 각자 활동을 하다가 두 기구를 통합하여 연합기구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조직되지 못하였다. 전쟁 후인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가 발족되었다. 기구의 기원은 1910년 영국 에딘버러 (Edinburgh)에서 열렸던 세계선교대회(I.M.C.)이다. I.M.C.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 지역의 선교에 따른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W.C.C.는 지금까지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교회일체와 분열의 양면을 걸어 왔다. 최근 2013년 W.C.C. 총회의 부산 개최를 계기로 교회일체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에서의 W.C.C.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해볼 때, 이 문제는 교회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교권적 대립을 초래하기도 하였다[2]. 이러한 현상은 그간의 W.C.C.의 교회일체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매우 피상적이었고, 그 결과 W.C.C.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3년도 W.C.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유치하게 되었다는 것은, W.C.C.의 신학적 입장에 공감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W.C.C.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로서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성경과 복음에 충실하지 않은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 주어진 것으로 본다[3].

이러한 정반대의 논리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촉매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황명길[4]은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과 공산주의자와 관련됨,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향, 종교다원주의를 지향,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 비성경적 선교관, 전도론을 주장, 해방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 하였다. 정준모[5]는 W.C.C.의 신학을 성경문제와 구원관 문제, 선교관 문제 이 세 가지로 평가비판한다. 이은선[6]은 W.C.C.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분명한 신학적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W.C.C.는 신학적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의 선교’ 와 복음 선포를 통한 개종의 포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독교인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W.C.C.의 반대 입장에 대해 이정석[3]은 W.C.C.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과 W.C.C.는 전체적으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없음,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용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W.C.C.의 신학적 입장을 옹호한다.

W.C.C.에 대한 한국교회의 침예한 대립관계를 정리한다면, 첫째는, 분열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신학사상의 일치를 주장한다는 교회일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W.C.C.의 교회일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W.C.C.의 신학사상을 검토하여 이를 칼빈의 신학사상에 비추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W.C.C.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올바른 교회일치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W.C.C.의 교회일치 논란

2.1 에큐메니컬 운동의 역사

현대 에큐메니컬(Ecumenical) 운동은 1910년에 협력적인 선교적 노력으로서 시작되었다. 라토렛(Kenneth Scott Latourette) “ 에큐메니컬 운동은 대부분 선교운동의 부산물이었다” [7]고 말하였다. 선교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체들이 열렸는데, 1878년, 1888년에 런던에서 열린 협의회와 1900년에 뉴욕에서 열린 협의회가 중요하다. 사실상, 이 협의회들 등에서 마지막 협의회는 에큐메니컬 선교협의회(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 E.M.C)라고 이름 지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는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운동, “삶과 봉사” (Life and Work) 운동, 그리고 “세계선교대회” (World Missionary Conference, W.M.C.)를 계기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본격화된 이래로 결국 1937년 “신앙과 직제” 위원회 대표들과 “삶과 봉사” 위원회 대표들이 W.C.C.를 창출해 냈다.

2.2 W.C.C.의 신학사상 논란

일반적으로 특별히 교회의 본질 규명 및 활동과 관련하여, 바르트(Karl Barth),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그리고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신학이 영향을 미치면서[8] W.C.C.의 신학적 근간이 발전되고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영감론으로 개혁주의 성경관은 성경은 절대 무오한 성령에 의하여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과 신앙의 객관적 원리임을 믿고 고백한다. 그러나 W.C.C. 성경관[9]은 범교단, 초교파, 종교다원주의 수용과 포용으로 성경만을 신학과 신앙의 절대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절대 기초 교리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구원관[10]은 전통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고백과는 다르게 변질된 신(神) 중심의 보편구원론 이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성화론으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운동은 사회참여의 면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사회” 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11]. 사

회정의에 대한 참여의 입장은 제5차 세계교회협의회(W.C.C.)가 끝난 이듬해인 1976년 중앙위원회에서 ‘선교와 전도 위원회’를 위촉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1982년 7월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여 에큐메니컬 신조로 채택하였다. 이 신조는 1948년 암스테르담부터 시작하여 1975년 나이로비에 이르는 선교대회와 모든 부분을 정리해서 정립하여 사회봉사에 대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전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신조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 중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복음과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그리고 선교의 장과 대상으로서의 6대주의 내용을 통해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구원에만 치중하는 탈 성경적 성격이 아닐 수 없다.

선교론에서는 W.C.C.의 선교개념을 한마디로 “넓어진 선교개념”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는데 이는 전통교회의 선교와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며 실행자라고 하는 사상이다.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심으로써 선교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닌 더 근본적인 데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선지자들, 말씀들, 메시아, 아들, 사도, 교회, 들이 선교사로 보내진 것으로서 이 선교사들이 모두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선교의 근원이 전반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탈교회적 선교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교회론은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영혼구원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이 아니라 교회연합을 수단 삼아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여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므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12]. 이 운동의 교회론은 목적에 부응하는 교회갱신을 시작으로 교회의 사회화, 세속화, 나중에는 폭력까지 용납하는 교회의 정치화 단계에 까지 나아갔다.

2.3 한국교회와의 관계

W.C.C.에 가입하는 문제는 한국교회 장로 교단이 분열되는 데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가입을 찬성하는 측과 가입을 반대하는 측의 대립으로 인하여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열되었다. 합동측과 통합측의 분열과정에서 주요 논쟁점은, W.C.C.가 비성경적인 관점에서 단일 교회를 목표로 삼으며,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신정통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고, 그것이 공산주의에 유익을 준다[6]는 세 가지 측면이 제기되었다.

W.C.C. 제10차 총회의 한국(부산) 유치로 인해 한국교회에는 다시금 이 기구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극단적인 자유신학을 주장하고, 성경 비평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을 포용하는 사람들이 이 행사를 이념적으로 끌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 행사를 유치한 측에서는 이를 한국교회 전체가 경사로 여길 ‘기독교 올림픽’이라고 자평하지만, 반대편에서는 W.C.C. 자체를 순수한 기독교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부산 유치를 소수 교단의 합작품 정도로 여길 뿐이다.

W.C.C. 논쟁에서 W.C.C.를 반대하는 측은 이 기구가 안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 점을 주로 거론

하고 있다. 반면 W.C.C. 측에서는 연합과 일치에 사회적, 문화적, 실용적, 실존적 유용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관점의 괴리로 말미암아 동일한 교리 위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에큐메니즘 본연의 신학적 담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W.C.C. 교회일치의 한계와 대안

3.1 부산총회에 대한 비판

부산총회는 생명, 정의, 평화 문제와 최근 에큐메니컬 신학의 중요한 의제인 “창조질서의 보전”(JPIC)의 문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와 통전적 선교의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 논의했다.

기독교 선교-전도 선언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 핵심 주장은 반 기독교적이며, 이단적이다[7].

제10차 부산총회의 선교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동방정교회 신학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오순절교회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스도의 선교(mission Christi)”, “교회의 선교”라는 복음주의자들의 선교이해를 넘어서서 1952년 빌링엄 I.M.C. 이후 ‘하나님의 선교’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에큐메니컬 진영은 부산총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n Trinitas)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신학적 틀 안에서 “성령의 선교”(mission Spiritus)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교와 생명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의의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제10차 부산총회는 거대한 영적 혼란을 몰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 피조물의 생명 지킴이, 환경운동 전도사, 인민해방 운동가로 등장시켰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와 포용주의, 신앙무차별주의와 더불어 교회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하게 했다.

3.2 W. C. C.에 대한 비판

에큐메니컬 운동(ecumenical movement)이 논의될 때에, 몇 가지 문제들이 복음주의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끈다. 에릭슨에 의하면,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기본적인 교리들(basic doctrines)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친교는 불가능하다고 항상 주장해 왔다[16] 이 주장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는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유래한다.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면, 신학적인 문제(the Theological Issue)에서 에릭슨[8]은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기본적인 교리들에 찬성하지 않는 집단과는 연합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몽고메리[9]는 친교를 위한 신학적 토대와 관련하여, 에큐메니컬 운동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종종 최소의 공통분모에 동의하였던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복음주의자들

은 이 친교의 어떤 회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론적인 문제(the Ecclesiological Issue)와 방법론적인 문제(the Methodological Issue), 목적론적인 문제(the Teleological Issue)에 대한 비판이 있다.

교회론적인 문제(the Ecclesiological Issue)에서 교회론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의 단순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교회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일치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가. 여기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본성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역시 ‘교회’ (church)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신자들의 지역적인 회중이나, 교파나, 혹은 교파들의 연합에 적용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은 교회정치의 구조와 목회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서도 역시 일치가 있어야 함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19]. 확신을 가진 감독교회 신도들과 이론적인 회중교회[20] 신도들의 병합은 교회정치의 조직과 행정, 성직 수임의 의미와 기준, 그리고 유사한 주제들에 관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없이는 성취될 가망이 없다.

방법론적인 문제(the Methodological Issue)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수립하게 되는 주된 근거는 각기 다른 증언의 약점들을 극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실용적인 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적절성이 존재한다. 정확히 말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에큐메니컬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린셀(Harold Linsell)은 다른 교파들이 이 분야에서 성장과 진보를 보여주고 있었던 한 때에, 캐나다 연합교회는 줄어드는 신자와 선교사들의 감소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것의 에너지를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들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선교와 복음 전도의 일차적인 과제를 무사했다는 것이다.

목적론적인 문제(the Teleological Issue)에서는 에릭슨은 모든 교파들을 하나의 초교회로 조직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해 W.C.C. 지도자들은 이것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단호하게 선언하였다고 진술한다[21]. 에스텝(William Roscoe Estep)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그는 W.C.C.의 일부 다른 지도자들이 모든 교회들의 조직적인 연합이 추구하고 달성되어야 한다는 데에 강한 반대를 주장하였다.91) 또한 톰슨(E. Roberts-Thomson)은 W.C.C.의 회원들의 양심들이 분리됨의 죄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되어서 협의회의 활동을 능가하는 병합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22].

3.3 교회일치의 방향 제시

교회일치의 방향제시로서 첫째,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 둘째, 교회일치의 내용, 셋째, 바람직한 교회일치를 제시한다.

첫째,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에 대해, 칼빈은 교회의 정의에 대해, 교회는 믿음을 생기게 하고 증대시키며, 그 목표에 이르게 하려면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외적 도움(outward helps)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도(preaching of the gospel)를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례전의 참여자들에게 신앙을 자라게 하며 돈독하게 위한 수단[23]으로서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교회는 “순례자(a pilgrim) “이다[24]. 사도행전 8장 1절의 누가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the Church which was at Jerusalem)라고 호칭했을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그 밖의 교회들이 다른 곳에도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 후에 생겨난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의 전기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25]. 사도행전 9장 31절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과 집(the temple and house of God)이요, 신자들 또한 개별적으로 볼 때 성전(a temple)이다[26].

둘째, 교회일치의 내용으로 믿음의 일치, 교회 본질의 일치, 분열 불가의 일치이다. 믿음의 일치는 사도신경에서 “믿는다” 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이란, 가현적 교회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다. “믿는다” 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양떼와 사나운 짐승들이 이외의 다른 말로 구별되어질 수 없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교회 본질의 일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교회로서는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자각을 가지는 사람은 은총의 선택 교리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아니며 도리어 믿음의 확신이 보장된다. 교회를 믿는 증거는 자기가 교회의 지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27].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어머니가 인간을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인간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피 주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키프리아누스(Caecilius Cyprianus, 190?-258)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28]고 주장한데 대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니일 수도 있다” [29]고 말한다. 율법 하에서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림 후에도 이러했는데, 이는 마치 인간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칠 당시의 바울의 증거와 같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한 몸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라는 조건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30].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 12:12, 엡 1:22).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여 교회의 연합성과 일치를 강조한다.

분열 불가의 일치는 유대인들의 교회의 유지 사유로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교회를 타락시켰지만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로마 교회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정당성에서 교황주의자들이 분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 즉 로마 교회는 우상숭배가 명백하며, 이는 결국 신성모독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이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분리 불가의 이유에서 표지에 대한 유

의는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전을 순수하게 집행한다면 그러한 두 가지 표지(marks)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체를 교회로 인정해야 한다와 교회의 존속 이유로 복음 선포와 성례전 집행은 반대 없이 계속 남아 있었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교회가 존속했다.

셋째, 바람직한 교회일치로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 분 구세주(the one Savior Lord)와 주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동일한 영적인 몸(spiritual body)의 일부이다(고전 12:13)[30]. 또한 신자들의 영적인 일치(spiritual unity)는 서로에 대한 선의와 친교와 사랑 속에서 나타나거나 표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공통적 교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신앙 안에서 모든 교회에 하나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사된다. 이러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 받은 자들 모두는 하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들이 성만찬을 정당하게 거행한다면,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다른 교회와의 공통점을 다른 교회의 관점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실현시켜야 한다.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할 때마다 함께 일해야 한다[30]. 즉 만약 교리나 실천의 어떤 본질적인 요점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차이점들을 제쳐놓은 경우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은 세상에 공통으로 증거하는 것이며, 위탁된 자원들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진리는 오히려 새롭게 발견되어야 한다. 신앙과 진리 인식에 무관심해질 때, 교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교적인 비교와 교의학적인 타협은 결코 통일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지 감추기에 급급한 말과 형식들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진정한 교회 통일을 이루려면, 교의학적인 차이들을 신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결론

본 연구는 2013년 W.C.C. 부산총회를 계기로 하여 촉발된 교회일치에 관한 논쟁을 통해 새로운 교회일치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1948년 W.C.C.의 설립 이래 이 기구는 숱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설립배경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기구통합을 이루기 위해 신학사상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인 제9차 브라질 총회에서 348개 교단이 참가하였다. 전 세계 기독교 교단 중 보수 교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이 참석했다. 이는 결국 신학사상에 대한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참여 교단마다 그들의 신앙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해방신학 등은 신학사상 논의에 있어서 보수 신학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용공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한국 보수 교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논쟁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일치를 칼빈의 신학사상에 비추어 논의하고자 했다. 칼빈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하여 교회일치를 주장한다. 즉 믿음의 일치, 교회 본질의 일치, 분리 불가의 원칙 등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기구통합에 반대한다. 교회일치를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하고, 둘째, 기존의 공통적 교회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셋째, 다른 교회와의 공통점을 다른 교회의 관점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실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쟁점아래 W.C.C를 중심으로 교회일치에 대한 논란은 이루어지고 있다.

References

- [1] W. A. Visser't Hooft, *The Genesis and Format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Lee, H. G., translated, Seoul: Presbyterian Church publisher, (1993), p.78.
- [2] S. G. Lee, Y. G. Pak, Y. J. Kim, S. B. Kim, S. G. Lee, *WCC, is it true church union movement*. GyeongGi: Yeongumsa, (2012), p.148.
- [3] J. S. Lee, *Korean churches and W. C. C.* *Christian theological journal*, Vol. 18. (2010), p.37-48.
- [4] M. G. Hwang, *A reformist position on the birth, history, and theolog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 C. C.)* *Korean theology*, Vol. 23. (2010), pp.169-174.
- [5] J. M. Jeong, *Reform Theology W.C.C. Ecumenism*. Seoul: Mokyang, (2010), pp.34-40.
- [6] Y. S. Lee, *Organization and Theolog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Criticism from Evangelical Perspective*. *Holiness Church and Theology*, Vol. 21,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Modern Christian History Institute, (2009), pp.66-93.
- [7] K. S. Latourette, "Ecumenical Bearings of the Missionary Movement and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n *Ecumenical Movement*, (1990), p.358.
- [8] J. M. Jeong, *Reformed theology and W. C. C. Ecumenism*. GyeongGi: Mokyang, (2010), p.36.
- [9] B. H. Moon, *Criticism on the apparent ecumenical theory of W. C. C. Un-Biblical, Antidoctrinal*, *Monthly pastoral* Vol. September, (2010), p.75.
- [10] *World Council of Churches com-pile, General Meeting Report*. H. G. Lee Translation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er, (1993), p.54.
- [11] W.A. Vissert Hooft,, *Origin and format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 G. Lee Translation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er, (1993), p.252.
- [12] D. M. Jeong, *History and Issues of W. C. C. Ecumenial Movement*. *Christian theological journal*, Vol. 18, (2010), pp.29-30.

- [13] G. H. Bok, WCC's primary theological thought regarding the reformed theological critique. Master's thesis Anyang University. (2015), pp.124-127.
- [14] M.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2016), p.1148, p.1149, p.1149, p.1150, p.1151, p.1151.
- [15] M.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2016), p.1149.
- [16] J. Montgomery, W. Ecumenicity, evangelicals, and Rome, (1969), p.17.
- [17] M.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2016), p.1149.
- [18]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6), p.581.
- [19] M.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2016), p.1150.
- [20] E. Roberts-Thomson, With Hands Outstretched (Morgan & Scott), (1962), p.39.
- [2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1-1), pp.1011-1012.
- [22]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vol. I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Reprinted (2009), p.292. ma 16:18.
- [23] John Calvin, Commentary upon the Act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Reprinted) (2009), p.323.
- [24] Ibid., p.394.
- [25] Ibid. (IV. 1. 3), p.1014.
- [26] Cyprian, On the Church: Select Treatises (St. Vladimirs Seminary), (2006), 6
- [2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1. 2), (2009), P.1012.
- [28]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Reprinted), (2009), p.458. rom 12:5.
- [29]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2016), p.1151.
- [30]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2016), p.1151.